

# 독일, 문화예술과 미디어 지원을 통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모색

곽 소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어린이문화팀 과장

지난 2월 러시아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로 독일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문화예술과 미디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과 연대는 전쟁으로 인한 위기와 강압적 통치 하에서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가장 취약하고 보호되어야 함을 방증하고,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도 문화예술과 미디어 분야의 연대와 관련 정책적 논의와 실천의 필요성을 환기시킴

세계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지난 2월 러시아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민주주의의 가치,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문화예술과 미디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오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27일 독일 연방내각은 우크라이나 문화예술과 미디어 지원을 위해 2천만 유로(한화 약 266억 7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전쟁 초기부터 시작된 다양한 지원 조치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됨

독일 연방 문화미디어청(이하 BKM)은 연방문화재단, 피테 인스티튜트와 같은 매개기관과 전문 분야별·장르별 공공·민간 기관 및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주요 지원 정책은 우크라이나 문화예술인과 언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긴급구호기금과 레지던시 지원,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 독립적인 언론 보도와 미디어를 위한 지원, 문화예술 장르별 지원과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등을 포괄함.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 및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긴급 지원 : 독일 연방문화재단과 피테 인스티튜트는 우크라이나 예술가와 문화종사자의 신속 재정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기금 약 50만 유로(한화 약 6억 6천 4백만 원)를 마련했고 큰 수요를 고려하여 80만 유로(한화 약 10억 6천 3백만 원)를 증액함. 추가적으로 러시아 침략 전쟁을 비판하여 정치적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처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예술가를 위한 긴급구호기금을 마련함. BKM은 우크라이나 망명, 난민 언론인 등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 3천 6백만 원)의 긴급지원기금을 투입함
-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 : BKM은 외무부와 함께 40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박물관과 3,000여개의 문화 유적지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설립함. 이 네트워크는 전쟁으로 위협에 처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국제적 지원을 매개하고 조정함. 네트워크의 중앙 허브는 ICOM 독일이 담당하고, 독일 국립도서관, 연방기록보관소, 고고학 연구소,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 연방 주 문화재단,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가 협력하고 있음. 또한 독일은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비상 그룹(UNESCO Emergency Group)'에도 참여하고 있음
- 공연 분야 및 영화 제작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BKM은 '독일 극장협회'와 공동으로 'U\*act'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예술가들과 협력하는 극장을 지원하여, 이들이 독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연극, 무용제작, 공연에 참여하며 작업 기회를 갖고 독일 문화 현장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미디어

보드'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출신의 위기에 처한 영화 제작자를 위한 긴급지원 장학금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베를린에서 체류하며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 '태양의 시간(Sonnenstunde)' 프로그램은 독일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낭독, 콘서트, 연극, 문화기관 방문, 도시 투어, 워크숍 등의 문화예술 향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는 기관과 조직을 지원함. 이를 통해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을 제공함
-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 BKM은 역사규명기관, 역사적 추모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독립적 기록보관소, 박물관 종사자 및 NGO 활동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폭력적 통치와 독재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외에도 BKM은 '태스크포스 우크라이나'를 내부에 구성하여 시민사회와 정치를 연결하고 다양한 지원 조치들을 네트워킹하고 있음. 독일 연방정부 차원을 넘어 각 연방 주 문화부와 문화재단, 문화위원회, 전문 분야별·장르별 공공·민간기관과 협회, 기업들이 다양한 형식의 연대와 모금 활동을 전개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독일 문화위원회 웹사이트 (kulturrat.de)에서 참고할 수 있음



그림 1. 우크라이나의 7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렘베르크(리비우, Lviv) 구시가: 시민들이 대성당 주변의 조각상을 두텁게 감싸 보호하고 있다.

(이미지 : picture alliance / EPA | MIGUEL A. LOPES)

원문출처

Die Bundesregierung(2022.07.28.). [Krieg in der Ukraine] Hilfsmaßnahmen für Kultur und Medie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kazleramt/staatsministerin-fuer-kultur-und-medien/hilfsmassnahmen-fuer-kultur-und-medien-2025064>)

Die Bundesregierung(2022.03.21.). [Netzwerk Kulturgutschutz Ukraine] Roth: "Kulturerbe der Ukraine ist schwer bedroh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kazleramt/staatsministerin-fuer-kultur-und-medien/roth-kulturerbe-der-ukraine-ist-schwer-bedroht--2018424>)

Die Bundesregierung(2022.04.27.). [Kabinett verabschiedet Ergänzungshaushalt] 20 Millionen Euro für ukrainische Kultur und Medie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kazleramt/staatsministerin-fuer-kultur-und-medien/aktuelles/ergaenzungshaushalt-kultur-2028156>)

Kulturstiftung Des Bundes(독일연방문화재단), [BILD UND RAUM] #We Stand With Ukraine : Soforthilfe-Stipendien für Kulturakteure aus und in der Ukraine.

([https://www.kulturstiftung-des-bundes.de/de/projekte/bild\\_und\\_raum/detail/nothilfefonds\\_fuer\\_kulturschaffende\\_aus\\_der\\_ukraine.html](https://www.kulturstiftung-des-bundes.de/de/projekte/bild_und_raum/detail/nothilfefonds_fuer_kulturschaffende_aus_der_ukraine.html))

Goethe-Institut, UNTERSTÜTZUNGSANGEBOTE FÜR KULTURSCHAFFENDE AUS UND IN DER UKRAINE.

([https://www.goethe.de/de/kul/ges/ser/ukf.html?wt\\_sc=ukraine-hilfe](https://www.goethe.de/de/kul/ges/ser/ukf.html?wt_sc=ukraine-hilfe))

Der Deutsche Kulturrat(독일문화위원회), [Start] Ukraine.

(<https://www.kulturrat.de/ukraine/>)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소연(2022). "독일, 문화예술과 미디어 지원을 통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모색".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정책새소식 제3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곽소연 soyeangoak@gmail.com

발행일: 2022.08.19.

#독일 #우크라이나 #전쟁 #연대 #문화예술지원 #미디어지원 #난민 #예술가 #언론인 #문화재보호